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나를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14]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1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은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떤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시편 139편은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 해주시는 동시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짧은 우리를 두 가지 모습으로 이룹니다.

1, 찬양

다윗은 시편 139:14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주체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놀랍고 신기하게 지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사실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놀랍게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삶은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노래하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치 있게 만들고 목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에 관한 이 사실에 대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찾으려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구세주로 모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특별히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사실을 압니다.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분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으로 만듭니다!

2, 신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놀랍고 훌륭하게 만드셨는지 생각하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놀라움과 감탄합니다. 특별히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그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돌보시는지에 대해 깨닫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이 하나님에 관해 짧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신뢰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일— 들로 말미암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4b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14b). 여러분은 모든 마음 다해 이것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분께서 하신 선한 일들을 신뢰하십니까? 이런 신뢰는 오직 예수님을 알고 그 분을 믿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여전히 그 분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